

# 법원사람들

## 01

2026 January Vol. 489



시작, 피짐, 새로운 발걸음



QR코드를 통해  
법원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Contents



## Cover story

새해 첫 <법원사람들>에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서울동부지방법원과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또 '법원사람들 문예상' 시상식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반갑고 즐거운 소식만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 법원사람들

2026 January Vol. 489

### 발행일

2026년 1월1일

### 발행인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 편집인

공보관 임영철

### 편집총괄인

홍보기획관 김태완

### 편집기획팀

곽인욱, 유수연, 백지연, 최선형

### 발행처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 전화

02-3480-1456

### 팩스

02-533-5484

### 기획·디자인·편집

디앤씨컴퍼니



## 법원의 올림

06

### 빛나는 얼굴

존중과 배려로 완성된  
서울동부지방법원

12

### 현장의 시선

ART IN COURT

16

### 성장의 발자취

테니스에서의 작은 성취가  
일상을 움직인다

### 대법원채널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 사람들의 하모니

•

**22**

### 사유의 순간

브리지 강의를 하다

**26**

### 시간의 기억

둘째가 물어다 준 범씨

**30**

### 마음의 온기

개천용 말고 또랑용

**34**

### 이달의 법원사

2008년 1월 1일 시행된 가족관계  
등록제도,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듯  
감동했던 기억

**38**

### 법원의 하루

모두를 웃게 만드는  
민사신청과의 햇살!

## 일상의 여운

•

**42**

### 우리집 진짜 주인

쿨러들어온 솜뭉치, 맹수가 되어  
내 마음을 점령하다  
번식장의 '럭키'에서 금메달리스트  
'감자'가되기까지

**46**

### 법원 스토리

제24회 '법원사람들 문예상'  
시상식

**50**

### 근처 한 바퀴

붉은 벽돌의 낭만부터  
한강의 겨울 윤슬까지

**54**

### 독자 참여

센스 만점! 법원  
N행시 짓기

법원의 울림

# 법원사람들의 오늘이 빛어낸 희망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작은 미소가 모여 만드는  
기적. 법원 곳곳을 환하게 비추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사람과 풍경을 담아보았다.



## 빛나는 얼굴

#서울동부지방법원

#문정동법조타운

#존중과배려

‘존중과 배려’의 철학 아래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만나본다.

존중과 배려로 완성된 서울동부지방법원

## 현장의 시선

#서울동부지방법원청사

#미술

#ART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 인증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 공간 조성까지.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의 풍경을 만나보자.

ART IN COURT

## 성장의 발자취

#테니스

#함께하는성장

#작은성취

#내일의변화

코트 위, 김준하·조상은 판사의 열정이 추위를 녹입니다. 서툰 ‘테린이’로 시작해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함께 성장하는 두 사람. 테니스로 빚어낸 건 강한 에너지를 전한다.

테니스에서의 작은 성취가 일상을 움직인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준하·조상은 판사

# 존중과 배려로 완성된 서울동부지방법원

글. 이원복 사진. 홍승진

정부의 동부 법원·검찰청 이전을 통해 2017년 서울 문정동 청사로 자리를 옮기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법기관들이 집적되며 형성된 법조타운의 중심에서 서울 동부권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법관과 재판연구원, 법원공무원 등 400여 명의 구성원이 민사·형사 재판은 물론 각종 신청·비송 사건과 등기 업무를 수행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쓴다.



임조은 주무관, 엄서영 참여관,

신민권 사무국장, 박범석 법원장, 이지은 재판연구원,

신명섭 주무관, 이준석 판사, 김영민 사무관



### 문정동 법조타운의 중심에 자리하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은 정부가 서울 동부 법원·검찰청 이전 계획을 세우면서 조성된 대규모 법조 행정 거점이다. 이 일대는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법조 복합단지로 성장했으며, 2017년경 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청 이전을 시작으로 관계 기관도 순차적으로 입주해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서울 동부권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며,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업무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재판부, 사무국, 등기국으로 구성된 서울동부지방법원에는 법관 70여 명, 재판연구원 10명, 법원공무원 330여 명 등 400여 명의 법원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며 국민에게 양질의 재판과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다. 민사재판부와 형사재판부로 구성

된 재판부는 각종 재판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각종 비송 사건, 신청 업무 등을, 등기국은 각종 등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

### 모두를 생각하는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역사는 약 5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1년 9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청사에서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으로 개원 후 2004년에 이르러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승격했다. 이후 2017년 3월에 서울 송파구 문정동 청사에 자리 잡은 것이다.

현재의 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2층으로 연면적이 약 45,181㎡(약 13,667평)에 달하며 공간적 여유가 많고 비교적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로써 다양한 사법 서비스 제공과 민원 처리가 가능하며 민원인과 법원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법원을 방문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스마트 재판 알리미, 청사 안내 키오스크 등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 법원 중에서는 최초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arrier Free)' 최우수등급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냉·난방 시태양광과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도 활용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사랑받는 이유**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자랑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안정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사법 신뢰의 기반이 된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모든 법원 구성원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결과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구성원들에게도 오래 있고 싶은 좋은 법원으로 꼽힌다. '다산(多産)의 법원'이라는 별칭이 생긴 것도 이 때문이다. 이곳으로 전 입하면 유독 임신·출산이라는 축복을 맞이하는 구성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만큼 근무하기 좋은 곳이고, 인화·단결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다.

**끊임없이 발전을 노력하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지만 발전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는다. 전문재판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인문학 교양 강좌 등을 진행하면서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뇌과학자로 잘 알려진 장동선 박사가 '뇌과학자가 바라보는 AI 시대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열어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고, 지난해 9월에는 처음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양대 이상훈 교수와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세용 부장판사가 발표자로 나선 학술대회에는 중간고사를 앞둔 시기임에도 30여 명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참석했다. 2025년 11월에는 체코의 페트로 안겔로쉬(Petr Angyalossy) 대법원장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방문했다. 조정센터와 법정통역센터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자랑하는 전자소송 시스템 시연에 참관했다. 페트로 안겔로쉬 대법원장은 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해 질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관내 서울지방변호사회 동부협의회,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와 대면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쌓아왔다.



강영은 주무관, 이유정 주무관

이종민 주무관, 김선의 총무과장, 김응경 주무관,

김수인 행정관, 강정모 행정관, 박정원 주무관



### 함께하는 세상의 아름다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사랑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지역과의 화합'이다. 관할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학교,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통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방문해 재판을 방청하고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지는 법원 견학이 활발하기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참여재판 때는 그림자배심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한다. 그림자배심원은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그림자배심원으로서 일반 배심원과 동일하게 재판을 방청하고 자체적으로 평의를 거쳐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사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2025년 5월에는 관내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도 참여한 모의 평결을 진행했다. 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는 2025년 공동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08년부터 지역 사회를 두루 살피고 따뜻함을 나누기 위한 사랑 나눔 봉사활동 매년 이어지고 있다. 2025년 12월에는 '구립 오금동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 아동과 함께 환경 보호 활동을 펼치

고 법관, 법원공무원이라는 직업에 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보내는 등 우선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일반 시민으로부터 재판 절차나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사법모니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총 11명의 시민사법모니터를 위촉했다. 이 외에도 청사 잔디 마당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이를 개방하는 등 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 등과 산책을 즐기러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찾아오기도 했다.

### 뛰어난 업무 역량과 팀워크는 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운동, 예술 등 자기 계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동호회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축구, 골프, 요가, 라인 댄스, 자전거, 달리기 등의 운동 동호회와 그림, 서예, 합창 등 예술 동호회 그리고 4층 옥상 정원에서 활동하는 도시농부 등 18개의 동아리가 있다. 최근에 합창 동호회 '동부 하모니'는 그동안 같고 닦았던 노래 실력을 발휘해

## 법원의 울림

3층 다목적 홀 앞에서 법원 구성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을 선보였다.

동호회뿐만 아니라 총 13개의 전문 역량 강화 연구회(법관 6개, 법원 공무원 7개)도 왕성하게 열리고 있으며, 연구회별로 연구 주제에 관한 발표·토론 등 연구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구성원은 대부분 1개 이상의 연구회에서 활동하면서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각 연구회를 내실 있게 운영한 결과 2025년 전문 역량 강화 연구회 우수 법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구성원들은 무엇보다 사법부 본연의 목적을 우선시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모두 입을 모았다. 기본권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직시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법원으로 더욱 거듭나겠다는 다짐도 되새겼다. 또한 법률 문화 창달을 위해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이전보다 더 살피고 적극적

으로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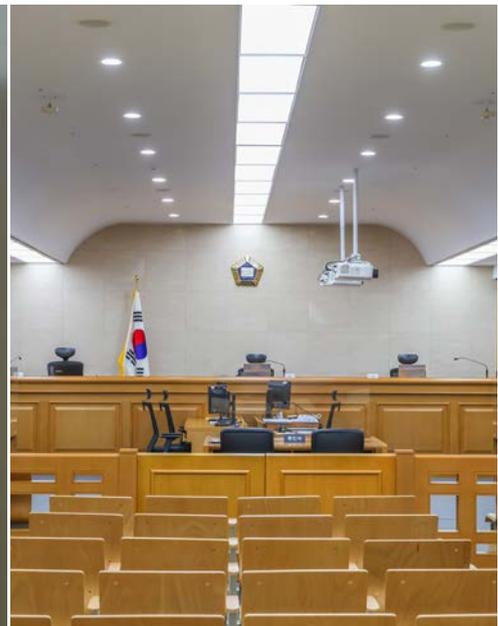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세상에서 법조계 역시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모든 법원 구성원이 끊임없이 내일을 생각하고, 쇄신해 언제나 최고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영상으로 만나는 법원 이야기



윤정성 주무관, 구자형 주무관



## 미니 인터뷰

박범석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장



**Q.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어떤 곳인가요?**

A. 한 번은 근무하고 싶은 법원, 한 번 근무하면 또 근무하고 싶은 법원입니다. 제가 여러 법원을 근무해 왔지만, 대한민국 법원 중 위치와 시설이 가장 좋을 뿐만 아니라, 400여 명(법관 70여 명, 법원공무원 330여 명)의 훌륭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어 능력이 뛰어나고, 열의가 높고 인화(人和)까지 좋습니다.

**Q.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운영 방침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A. ‘존중하고 배려하며 신뢰하는 법원’입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동부 법원의 문화입니다. 배려란 자신의 관점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하는 것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따뜻한 마음과 공정한 눈으로 언제나 국민 곁에 믿음직하게 서 있는 법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Q. 구성원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 법원 구성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우리 법원이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지난해도 평온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에는 시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AI시대에 적자생존의 마음으로 시와 더욱 친하고 좋은 친구가 되시길 특별히 권유 드립니다. 2026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ART IN COURT

## 균형 위에 세운 사법의 가치

청사 앞 잔디 위에 자리한 인물 조형물이다. 서로 마주 선 두 사람이 하나의 구(球)를 함께 받치고 있는 형상으로, 협력과 균형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각진 면으로 구성된 인체는 단단함과 절제를 드러내며, 푸른 색감은 이성적 판단과 차분한 신뢰를 떠올리게 한다. 마주한 시선과 맞닿은 손끝은 법이 일방이 아닌 '함께 만들어 가는 질서'임을 암시한다.



### 머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법원

청사 뒤편에 조성된 휴식 공간이다. 낮은 석재 구조물과 완만한 단차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바쁜 동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잠시 머물 수 있는 여유를 만든다. 인위적으로 다듬기보다는 돌의 질감과 배치를 살려 구성한 공간은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전한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빛과 고요한 공기는 업무 중간의 짧은 쉼을 가능하게 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 조화의 가치가 머무는 법원

반원 형태의 세 구조가 서로 맞물리며 하나의 덩어리를 이뤄 요소들이 조화를 통해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매끄럽게 반사되는 표면에는 주변의 풍경이 고스란히 비치고, 그 뒤로 오래된 소나무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인공적인 형태와 자연의 시간이 한 장면에 겹쳐지며, 법의 판단 역시 현재의 결단 위에 축적된 시간과 맥락이 더해져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 행복을 가져다 주는 무지개



퇴근 후 테니스 코트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고 있을 때, ‘와, 저거 뭐지? 무지개 아니에요?’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에 모두들 하늘을 올려다 본다.

본래 무지개란, 비가 그치고 햇빛이 뒤에서 비출 때, 이른 아침이나 저녁쯤 태양이 낮게 떠 있을 때(아침이나 저녁), 반대편 하늘에 비구름이나 물방울이 많이 있을 때 빛이 물방울 속에서 굴절, 반사, 분산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 무지개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퇴근 시간 #맑은 날 하늘의 무지개**

##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는 공간, 도서관



분주한 하루의 걸을 따라 걷다 보면, 잠시 호흡을 고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진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도서관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법원 특유의 긴장감은 한 톤 낮아지고, 정돈된 서가와 차분한 조명 이 시선을 맞이한다. 오늘도 이 조용한 공간에서, 각자의 질문과 해답이 책 사이에서 천천히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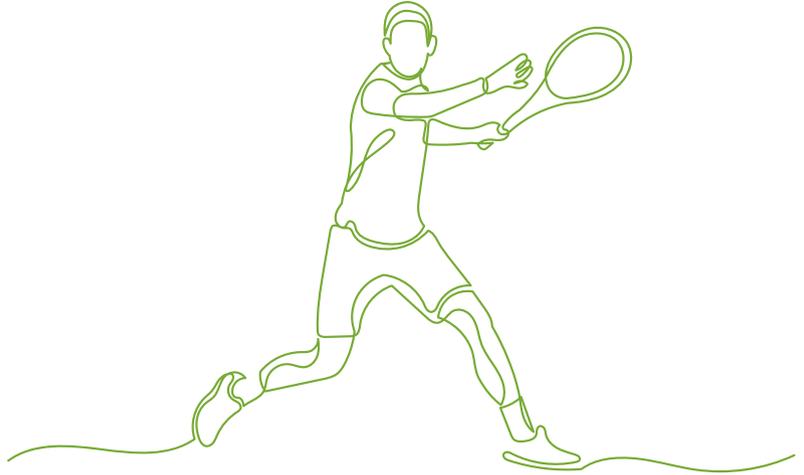
#법원 속 풍경 #도서관 #조용한 심포 #사유의 공간

SPACE

# 테니스에서의 작은 성취가 일상을 움직인다

글. 이원복 사진. 홍승진

이제 막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한 김준하 판사와 조상은 판사에게 코트 위의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서툰 동작을 반복하며 얻은 작은 성취감은 일상에 활력을 더했고, 새로운 일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단순한 취미로 시작한 테니스는 어떻게 두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있을까. 그 변화의 과정을 따라가 본다.



## 익숙한 일상에 들어온 새로운 움직임

유난히 찬바람이 불던 어느 날 점심시간, 식사를 마친 사람들은 추위를 피해 따뜻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지만, 그 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 테니스장에서는 경쾌하게 튀는 테니스공 소리와 바쁘게 움직이는 누군가의 땀 박질 소리가 들린다. 바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배석판사로 일하는 재판부 김준하 판사와 신청합의부 조상은 판사다.

두 사람 모두 운동을 좋아해 최근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 중이었다. 주로 웨이트 트레이닝 등 혼자서 즐기는 운동을 해왔다는 김준하 판사는 어느 순간 여러 사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눈에 들어온 것이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테니스장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테니스를 시작하게 됐다.

“테니스 라켓을 잡은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첫 단계부터 배워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마냥 재미있었지만 조금씩 알게 되니 쉽지만은 않은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5년 전 잠깐 테니스 레슨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상은 판사도 실력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당시 열정은 뜨거웠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 6

개월 만에 레슨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한을 이제야 풀고 있다.

“포핸드, 백핸드 스트로크를 배웠고, 발리를 막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멈췄어요. 서브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 점이 아쉬웠죠. 좀 더 배워서 테니스 경기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 꾸준한 연습으로 한 계단씩 성장

제법 쌀쌀한 바람도 이들의 테니스 열정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아직 배울 것 많은 ‘테린이(테니스 초보자)’이지만,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성장’하고 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최근 네트 반대편에서 넘어와 바운드된 공을 치는 게 보기보다 쉬운 게 아님을 느낀 김준하 판사는 꾸준한 연습으로 이를 극복하는 즐거움을 경험했다.

“포핸드 스윙이나 백핸드 스윙을 처음 배운 날 생각 없이 동작을 흉내내었을 뿐이고 아무런 감이 없었다면, 레슨 회차를 거듭할수록 감이 생기고, ‘선생님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하는 생각이 스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즐겁습니다. 일상의 활력이 되기도 하구요.”



“테니스를 하며 느낀  
작은 성장이 일상과 업무에  
큰 에너지를 줍니다.  
같은 패턴의 일상이 반복되면  
누구나 쉽게 무기력해지기 쉽잖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테니스처럼  
역동적인 스포츠가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김준하 판사



테니스의 재미를 알아가는 것은 조상은 판사도 마찬가지다. 테니스 동아리 전문 강사의 레슨으로도 부족하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테니스 고수로 불리는 서동원 판사에게 부탁해 배우기도 한다.

“가끔 다른 분들에게 배우거나, 함께 복식 경기를 하기도 하죠. 처음에는 제 실력이 부족해서 팀이 일방적으로 밀리기도 했는데, 레슨을 병행하면서 조금씩 나아졌고 이제는 어느 정도 대등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실력이 늘고 있었더라고요.”

### 작은 성취가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다

테니스 코트 위에서의 작은 변화는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가 되기도 한다. 새롭게 배우며 성장하고 있다는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활력이 일상과 업무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준하 판사는 새로운 일 앞에서 주저하기보다 익히는 과정 자체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갖게 됐다고 한다.

“처음에는 공 하나 넘기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감이 잡히더라고요. 교과서적인 이야기겠지만, 무엇이든 처음에는 어려워도 계속하다 보면 발전한다는 것을 오랜만에 몸으로 느꼈습니다. 특별한 영감이나 변화를 기대하고 시작한 운동이 아니었지만 테니스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걸 보니 운동이 주는 힘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던 조상은 판사가 “테니스는 무기력함에 특효약”이라며 말을 이었다.

“테니스를 하며 느낀 작은 성장이 일상과 업무에 큰 에너지를 줍니다. 같은 패턴의 일상이 반복되면 누구나 쉽게 무기력해지기 쉽잖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테니스처럼 역동적인 스포츠가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조상은 판사에게 테니스는 분명히 일상의 분위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몸을 움직이며 얻는 성취감은 생각보다 오래 남아, 업무를 대하는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 함께하는 즐거움은 덤

두 사람은 이 같은 변화와 성장을 가능하게 한 테니스 동호회 소개도 빠뜨리지 않았다. 운동을 매개로 법원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곳으로, 좋은 시설과 체계적인 운영 그리고 초보자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가장 큰 장점이다. 테니스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시작의 문턱을 낮추고, 꾸준히 즐기는 이들에게는 실력을 쌓고 교류의 폭을 넓혀 준다.

테니스 실력은 부족하지만, 동호회 자랑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는 김준하 판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테니스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하루 빨리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온 뒤에도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테니스 코트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구성원들의 분위기가 가장 큰 장점이지요. 여기에 월례 대회와 연말 대회, 그리고 여러 구성원이 함께한다는 점은 법원 생활에 필요한 활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조상은 판사 역시 동호회의 가장 큰 강점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들었다. 뛰어난 실력자들이 많고, 무엇보다 테니스를 처음 시작하는 회원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잘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실력별로 A·B·C 그룹으로 나뉘어 월례회를 진행하다 보니, 저 같은 ‘테린이’도 부담 없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그룹 사람들끼리 함께 성장한다는 느낌도 받고요.”

정기 레슨과 월례회, 연말대회까지 이어지는 운영 방식은 동호회를 단순한 운동 모임이 아닌, 함께 즐기고 마무리하는 공동체로 완성한다. 조상은 판사는 이러한 경험을 종합해 “가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라고 느껴질 만큼 잘 갖춰진 동호회”라고 평가했다.

### 작은 변화로 내일의 큰 변화를 기대하다

꾸준히 연습해 만족할 만큼 실력을 쌓겠다는 두 사람은 저마다의 기준으로 다음 단계를 떠올리고 있다. 김준하 판사는 가능한 한 빨리 동호회 실력자들과 함께 멋진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목표다.

“지금 단계에서는 얼른 게임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점점 실력을 쌓아서 많은 회원분과 함께 경기를 하면서 배우고 싶어요.”

나아가 테니스를 계기로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태도를 삶 전반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렇게 테니스는 그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있다.

조상은 판사의 목표는 보다 구체적이다. 레슨을 통해 실력을 끌어올려 A그룹에 진입하는 것이 다음 단계다.

“테니스를 열심히 배우는 단계도 즐겁지만, A그룹에서 경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 실력이 향상됐다는 것도 분명하게 느껴질 테니까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배움의 단계에 서 있지만, 두 사람은 이미 테니스를 통해 일상과 업무에서 크고 작은 성장과 마음의 변화를 이뤘다. 코트 위에서 쌓은 경험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확장될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의 태도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 김준하 판사와 조상은 판사가 그려갈 다음 성장이 무엇인지, 함께 기대해 보자.

### 조상은 판사



# 법원사람들의 진심이 닿는 순간

새로운 출발선에 선 설렘과 지난 시간을 향한 깊은 감사,  
저마다의 진심이 빚어낸  
아름다운 하모니에  
귀 기울여 보자.

## 시간의 기억

#연년생육아

#워킹맘

#가족의탄생

복직을 앞두고 찾아온 뜻밖의 선물, 둘째. 갑작스러운 이사와 육아 전쟁으로 정신없는 나날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축복이었다.

**둘째가 물어다 준 법씨**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배미선 행정관

## 사유의 순간

#모교방문

#선배의진심

#초심

17년 만에 다시 찾은 모교, 까마득한 후배들 앞에서 법원 공무원의 삶. 후배들의 초롱초롱한 눈빛 속에서 잊고 있던 나의 초심을 마주한 하루

**브릿지 강의를 하다.**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김태균 행정관

## 마음의 온기

#개천용말고또랑용

#희망 #자부심

'개천에서 용 난다'는 옛말. 비록 거창한 강은 아닐지라도, 작은 도랑(또랑)에서 묵묵히 흐르며 성장한 '또랑용'의 자부심. 어려운 환경을 딛고 당당히 법관이 된 이큰가람 판사가 전하는 희망과 감사의 고백.

개천용 말고 또랑용  
- 창원지방법원 이큰가람 판사

## 이달의 법원사

#가족관계등록부

#호주제폐지

#2008년1월1일

2008년 1월 1일, 가(家) 중심의 호적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다. 우리 신분등록제도의 변화와 그 감동적인 의미를 살펴보자.

2008년 1월 1일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제도,  
세상의 중심에서 서 있는 듯 감동했던 기억  
- 고선미 법원도서관 기록연구관

## 법원의 하루

#민사신청과

#미소천사 #오염정행정관

분주한 업무 속에서도 잃지 않는 따뜻한 미소. 동료들에게는 든든한 해결사로, 민원인에게는 친절함 안내자로 활약한 오염정 행정관. 봄날의 햇살 같은 하루.

모두를 웃게 만드는 민사신청과의 햇살!  
- 서울동부지방법원 오염정 행정관



## 브릿지 강의를 하다.

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김태균 행정관

회식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십니까, 질주하는 무한경행 제25대 하랑 학생회장 24학번 000입니다. 동문회에서 브릿지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법원공무원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이지.’

나는 경찰행정학과 1기 졸업생이다. 그러다 보니 졸업생 대부분이 경찰공무원이고, 법원공무원은 매우 드물다. 그중에서도 교수님들과 꾸준히 교류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한테 연락이 온 것이다.

사실 이런 강의가 처음은 아니다. 후배들 개개인이 연락 와서 개인적으로 멘토링 해준 적도 몇 번 있었고, 법원공무원에 합격했던 2008년에는 대학교 차원에서 연락이 와서 법원공무원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내가 합격한 지 무려 17년이나 지나지 않았는가! 다른 건 몰라도 학원 및 시험 출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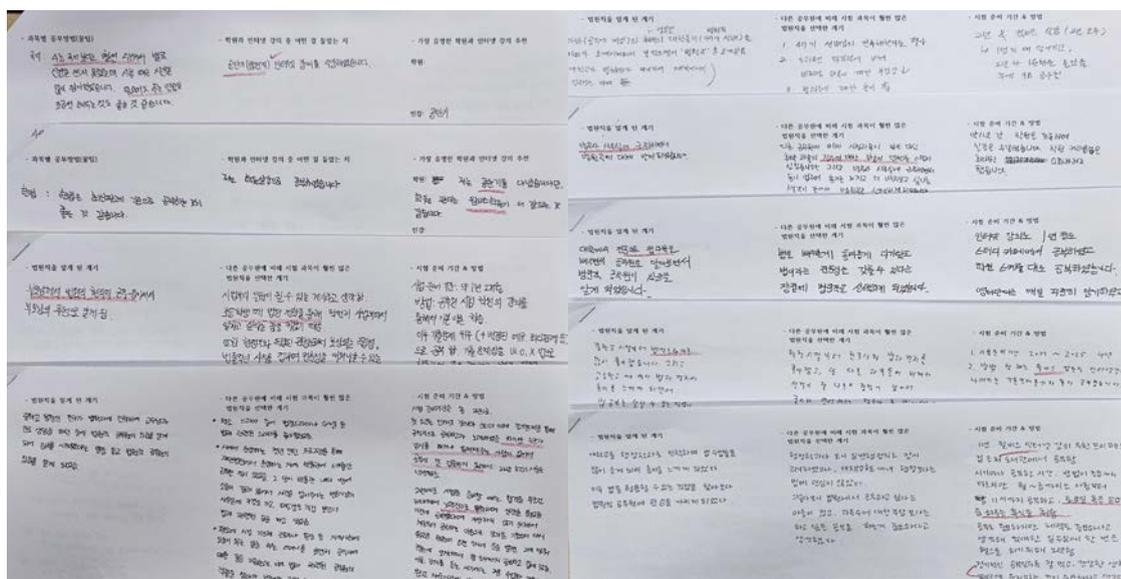
후배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

법원 관련 내용	수험 관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공무원을 알게 된 경로와 법원공무원을 선택한 계기</li> <li>- 민사신청과에서 하는 업무들과 업무 난이도</li> <li>- 이 일을 하기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과 어려움들</li> <li>- 법원에서 다루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부서를 나누는 기준</li> <li>-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꼭 알아야할 팁</li> <li>- 법원공무원들 워라밸의 정도와 야근을 많이 하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 준비 기간과 준비 방법</li> <li>- 실강과 인터넷 강의 중에 어떤 게 나은지</li> <li>- 과목별 공부 방법 및 시험 난이도</li> </ul>

항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옳은지, '나 때'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들었다.

고민 끝에, 학생회장에게 법원공무원에 대해서 후배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질문들 중 학원이나 시험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 막내 주무관들에게 협조를 구하기로 하였다.

50기&51기 주무관들의 도움으로 강의안을 마무리 짓던 중, 올해 합격자들이 실무수습을 나왔다. 그것도 무려 8명이 나! 이런 행운이! 서무계의 협조 아래 약간의 시간을 할애 받아 수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수습생들에게 설문을 받았고, 그것들까지 취합하여 최종 강의안을 완성하였다.





드디어 브릿지 강의 날! 설레는 맘으로 모교로 향했다. ‘복학한 선배들만 봐도 아저씨 같아 보일 텐데, 무려 20년 넘는 선배인 나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후배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어색하지 않을까?’, ‘명강은 아니어도 욕은 먹지 말아야 할 텐데...’ 온갖 걱정들을 하다 보니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강의실에 들어가니 나보다 20년~24년 어린 애들이 앉아있었다.

애기들이었다! 대학생이 아닌 중·고등학생처럼 보였다. ‘나도 저 나이 때 저렇게 었되게 생겼었나?’ 하는 생각을 하며 법원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였다.

내년부터 법원공무원 준비를 시작할 후배들이 가능한 덜 고생하고, 덜 걱정하고, 덜 오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내 목표이자 역할인데, 과연 오늘 나의 강의가 제대로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강의 내내 집중하며 경청하는 후배들 모습을 보고 감동하였고, 그 정도의 관심과 집중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들었다.

강의가 끝난 후 이어진 동문회 행사에서도 미처 강의를 듣지 못한 몇몇 후배들의 요청으로 법원공무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너도 내년부터 시작할 거지?” “응.” 설명이 끝난 후 나누는 둘의 대화를 들으니 마음이 뿌듯해졌다.



마지막으로, 경찰행정학과를 대표하는 민수홍 교수님의 시간! 25년 간 교수님의 노고 덕분에 우리 과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내년에 정년퇴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 찢아 찢어졌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교수님~!

나는 법원공무원인 게 좋다. 내 스펙으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평소에도 주변에 법원공무원으로서의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런 강의 제안이 들어오면 무조건 수락한다. 왜냐? 거짓말을 안 해도 되니까!

법원 가족! 200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험감독관이셨던 사무관님께서 쓰신 표현이다. 너무 인상 깊어 나도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인용하였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그 의미가 점점 퇴색하고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다. 사법부 개혁으로 어수선한 이때,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다시 예전처럼 '법원 가족'으로 똘똘 뭉쳤으면 좋겠다.

**이상으로, 질주하는 무한경행 제1대 학생회 00학번 & 대한민국법원 법원주사보 김태군이었습니다.**



2023년, 그 뜨거웠던 해의 이야기를 풀어본다.

## 둘째가 물어다 준

법망시

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배미선 행정관

### 2023년 4월

첫째가 돌이 다 되어갈 무렵, 드디어 복직할 시간이 다가왔다. “야호~! 드디어 복직이다!” 출산과 육아로 잠시 쉬었지만, 다시 법원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설렘 반, 긴장 반이었다. 간만에 차려입고, 점심시간 커피 한 잔 손에 들고 동료들과 수다 떨 내 모습을 상상하며 복직 의욕이 불타오르던 그때…!!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집계산만 복직...?”

설마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확인해 본 순간,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와... 진짜?” “이게 무슨 시추 에이션이지?” 그렇게 나의 복직 계획은 급제동이 걸렸다. 2022년 7월, 첫째를 낳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지나 이제 슬슬 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023년 11월, 둘째의 출산 예정일이 잡히면서 인생 계획에 없던 ‘연년생 엄마’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 예상치 못한 선물, 그리고 현실

사실 둘째를 계획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작은 생명. 놀랍고도 신기한 이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와... 이제 나는 애 둘 엄마가 되는 거야?” 첫째 키우는 것도 아직 한참 서투는데, 곧 있으면 두 아이의 엄마가 된다니...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기분. 걱정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연년생 육아’ 서바이벌이 시작되었다.



### 복직 대신 육아 레벨업

다시금 기저귀와 분유, 장난감과 씨름하는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첫째가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는 시기였기에, ‘한 손엔 첫째, 뺏속엔 둘째’라는 묘한 조합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다. 첫째가 쫓르르 다가와 내 배를 툭툭 두드리며 “엄마, 아기?” 하고 묻던 순간. 그게 어찌나 사랑스럽고 기특하던지…

*그해, 내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변화를 몰랐다. 세상에, 내가 이 둘 엄마라니.*

나는 삼남매의 맏이, K-장녀의 표본으로 자라며 어릴 때부터 양보와 인내를 강요받았다. 동생들에게 늘 양보하는 게 당연했고, 엄마 아빠의 “넌 큰애니까”라는 말은 마치 주문처럼 따라다녔다. 그래서 내 아이만큼은 외동으로 예쁘고 귀하게 키우고 싶었다. 그런데 16개월 된 첫째가 갑자기 ‘장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그 사실이 너무 미안하고 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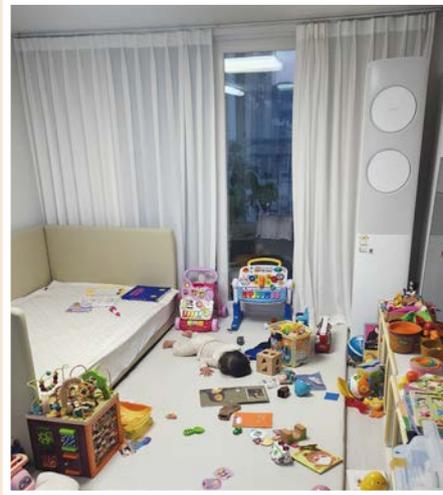
### 복직 대신 법원 진출

그 당시 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이었다. 안양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하철 2호선, 소위 ‘지옥철’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하루 두 번 전쟁을 치르며 살았다. 특히 첫째 임신 때, 그 지옥철에서 몇 번이나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땀이 뺄뺄 땀이 나다가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 느낌… 아찔했다. 그래서 둘째 임신 후, 나는 단호하게 결심했다.

“안 돼. 이번엔 가까운 곳으로 가야 해!” 그리하여 휴직한 채로 안산지원으로 급히 이동했다.

### "이제 집 문제인데요..." - 뜻밖의 이사

우리의 첫 보금자리는 두 칸짜리 작은 집이었다. 세 가족이 살기에 아늑하고 단란한 공간이었는데, 둘째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이 집이 너무 작아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이사 가야 하나?" 생각지도 않았던 인생의 빅 이벤트, '내 집 마련 & 이사 프로젝트'가 급작스럽게 진행됐다. 2023년 6월, 우연히 미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러 갔다. "그냥 구경이나 해볼까?" 했는데...



설명해 주던 상담사의 말이 어찌나 솔깃하던지, 마치 귀신에 홀린 듯 덜컥 계약부터 해버렸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후분양 아파트라서 11월에 완공되고 12월까지 입주해야 했다는 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2달 내에 팔아야만 분양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 만약 또 팔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긁어낸 계약금 몇천만 원이 사라지고, 분양권도 날아간다. 이때부터 부동산 뉴스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었다. "부동산 매매량 증가"라는 뉴스가 뜨면 가슴이 두근두근, "부동산 가격 하락" 뉴스가 나오면 멘탈이 무너지는 롤러코스터 같은 나날. 밤마다 악몽을 꾸면서도 발품을 팔고, 집을 정리하고, 중개소를 오가던 끝에... 기적처럼 2달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다. 게다가 집값도 조금 올려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두 칸짜리 집에서 세 칸짜리 집으로 레벨 업. 물론 주식,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 중도금과 잔금을 맞추느라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됐지만... 12월 한겨울,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와 17개월 된 조금 더 큰 아기를 데리고 남편과 나는 또 돌이서 그렇게 이사를 해낸다...

### "2023년 최대 난제, 11월 출산"

첫째가 제왕절개였기에 둘째도 당연히 수술로 낳아야 했다. 문제는 출산 후 4박 5일 입원 기간 동안, 남편과 16개월 된 첫째가 병실에서 함께 지내야 했다는 것. 양가 부모님은 광주와 부산에 계셨고, 모두 직장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즉, 출산과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이 오롯이 남편과 나의 몫이었다.

첫째에게 수없이 설명했다. "엄마가 아기를 낳으러 가면 며칠 동안 병원에 있어야 해." "동생이 생기면 엄마가 더 조심해야 해." 하지만 두 돌도 안 된 아기가 이 말을 이해할 리가 없었다.

그리고 D-day. 수술 후 누워 있는데, 첫째가 와서 나를 끌어안으며 울었다. "엄마, 안아줘..." 엄마가 안아주지 않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 아이는 한참을 울었고, 그걸 가만히 누워서 지켜봐야 하는 내 마음은 찢어졌다. 밤이 되면 남편이 겨우 재운 첫째를 침대 한쪽에 눕혀 놓았지만, 잠에서 깬 아이는 캄캄한 병

실에서 엄마를 찾아 또 울었다. 그날 남편이 잠깐 주차장에 간 사이, 첫째가 선반에 부딪혀 이마를 부어 잡고 우는 모습을 보며... 나는 침대에 누워서 함께 울었다.

그 순간,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래서 무조건 몸을 움직였다. 첫째 때보다 훨씬 빨리 걷기 시작했고, 덕분에 회복도 빨랐다.

### 조리원 탈출 후, 현실 육아 전쟁

조리원에서 둘째와 단둘이 지낸 일주일이 끝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전쟁이 시작되었다. 신생아는 쉴 새 없이 울고, 16개월 된 첫째는 질투 폭발. 하나는 안아달라고 하고, 하나는 젖 달라고 하고, 나는 누구 먼저 안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다. 4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남편 야간 근무 날은 두 아기를 붙잡고 함께 운 밤이 몇 날인지 셀 수 없는 시간들을 보냈다.

그렇게 2023년, 2024년의 내 인생 가장 처절하고 아름다운 나날을 보냈다. (현재는 2025년 복직 3개월 차 워킹맘 시리즈가 진행 중^^)

지금 생각하면... 어쩔 그렇게 모든 게 무모했을까? 어쩔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부딪혀가며 버텼을까? 그런데도, 어떻게든 살아냈다. 이제 보니, 둘째가 가져다준 범벅 덕분에 내 삶은 한층 더 단단해졌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아이 둘이 주는 그 행복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순간들에 항상 함께해 준 남편이 있어 어려움도 으쌰으쌰 이겨낼 수 있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또 아쉬운 추억이기도 하고... 많은 순간을 이겨냈지만 사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 다음은 내 둘 키우면서 빛 잡기!



# 개천용 말고 도랑용

글. 창원지방법원 이큰가람 판사

개천에서 용 난다.

개천에서 용 난다. 우리나라의 속담 중 하나로 국어사전에서는 ‘시원찮은 환경이나 변변찮은 부모에게서 뺄어난 인물이 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한다. 이 속담에서 말하는 ‘용’처럼 내가 뺄어난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조금 있지만, 나는 어려운 집안 환경에도 불구하고 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 개천용이 맞을 것이고, 여자이니 ‘개룡녀’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개천’이라는 단어에 꽂혔다. 남편에게 “개천에도 종류가 있는데 나는 그냥 개천 아니고 엄청 작은 실개천 이런 거 아니야?”라고 물으니 대문자 T인 우리 남편은 “그건 맞지.”라며 바로 긍정한다. 나는 과연 어느 정도의 물길에서 나온 용일까 궁금해졌다.

♪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

나는 라면이 맛있어서 먹었지만 이 가사 부분은 나의 어린 시절과 비슷하다. 엄마와 아빠는 열심히 일하셨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셨으며 끼니를 굶을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 집은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적이 있고, 아빠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 만성신부전으로 2급 장애인이 되었다. 아빠는 고교 중퇴의 용접공, 엄마는 엄밀히 따지면 초졸의 전자공장 생산직이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느 정도의 개천에서 난 용일까. 일단 ‘개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골창 물이 흘러 나가도록 길게 판 내.
2. 시내보다는 크지만 강보다는 작은 물줄기.

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 같은 아주 큰 물줄기인데 그것보다는 작은 것이 개천이란다. 내가 자라온 환경은 ‘강보다는 작다’ 정도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렇다면 다른 물줄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하천법에 의한 법정 하천(국가하천+지방하천)이 있고 법정하천이 아닌 ‘소하천’이 있다. 소하천에는 개천, 실개천, 소천, 시내, 개울, 도랑이 있다고 하는데 그에 관한 법정 출처는 아직 못 찾았다.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에는 이와 같은 정의 규정은 없는 듯하다. 검색을 하다 이런 내용의 블로그를 찾았다.

구분	뜻	비교
강(=가람)	넓고 길게 흐르는 큰 물줄기	
개천	시내보다는 크지만 강보다는 작은 물줄기	
실개천	폭이 매우 좁고 작은 개천	
소천	자그마한 내	
시내	골짜기나 평지에서 흐르는 자그마한 내	
개울	골짜기나 들에 흐르는 작은 물줄기	옛날에 마을 사람들이 자갈한 빨래를 할 수 있을 정도
도랑	매우 좁고 작은 개울	주로 논이나 밭에 내놓은 물길 빗물이 모여 처음으로 하천의 형태를 나타내는 곳

일단 나는 소위 못사는 집에서 자랐으니 ‘느낌적인 느낌’으로 나는 도랑이나 개울에서 났다고 보아야 맞다. 그렇다면 나는 ‘도랑’에서 난 용인가?

세상에는 정말 극한, 극악의 환경에서 울곧게 자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도랑용에 해당할 것이다. 이때의 ‘환경’은 정서적 환경과 경제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객관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가졌고, 건강한(건강했던) 부모와 언니가 있다.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부모를 존경하며 언니와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자랐다. 아빠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많아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언니와 나를 키웠다. 좋은 남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나 그 부분에는 의문이 있지만 좋은 아빠였다고 생각한다. 아빠는 나에게 법관의 꿈을 나도 모르게 심어주었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해주셨다. 집안 형편은 어려웠을지언정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범죄와 연루된 환경은 아니었다. 가족 중 누가 가출을 하거나 크나큰 방향을 한 적도 없었다. 스무 살 때 만난 남편은 나에게 ‘온실 속 화초’라는 표현을 했었다. 언니와는 지금도 매일 연락 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는 사이다.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적도 없고 중학교 때까지는 반장이나 전교 부회장도 했다. 정서적으로 완벽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100점 만점에 90점은 될 법한 환경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제적 환경은 좋지 않았다. 우리 집은 말 그대로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살다가 1996년부터 2018년까지 나와 동갑인 15평짜리 아파트에서 22년을 살았다. 한겨울 땅이 얼거나 한여름 비가 갑자기 많이 온 날에는 하수구가 역류하는 1층이었다. 엄마 아빠는 열심히 일했고 엄마는 누구보다 알뜰했지만 우리 집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엄마가 공부하기 싫으면 공고 가서 공장에서 돈 벌라고 진심으로 자주 얘기했다. 우리 집 인근에 2개의 공단지역이 있어 취직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언니와 나는 엄마가 그럴 때마다 발끈했고, 우리 집 형편에 둘 다 사립대를 가는 것은 무리였지만 어쨌든 둘 다 대학에 진학했다. 언니의 희생이 아주 컸다.

언니가 대학을 가던 때에는 첫 학기 등록금에 학자금 대출이 없던 때였다. 언니는 등록금을 낼 수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할 뻔했다. 친척들은 우리 집보다 사정이 훨씬 좋았음에도 단 한 집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언니의 친구가 빌려준 돈으로 언니는 겨우 대학에 갈 수 있었다.

언니가 대학교 1학년이던 때 아빠가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혈액투석을 받기 시작했다. 아빠는 일주일에 3번, 하루에 4시간씩 투석을 받으시면서도 일을 하셨다. 엄마는 매일 밤 공장에서 야근을 하면서도 힘들다는 내색 없이 살림을 꾸리셨다. 언니는 대학교에 다니는 내내 아르바이트와 과외로 돈을 벌어 등록금을 내고 엄마에게 생활비를 보냈다. 돈이 없어 휴학을 할 때도 있었고 친구들처럼 놀아보지도, 공부에 집중해보지도 못했다. 언니는 집안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급해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취직을 아주 급하게 했다.

내가 대학을 갈 때에는 엄마가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첫 학기 등록금을 내주었고 그 다음 등록금부터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나는 수능이 끝난 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내 용돈을 벌었고, 고시반에 들어간 후로는 전액 장학금을 받아 학교를 다녔다. 고시반에는 일반 기숙사와는 달리 기숙사비가 없고 고시 강의도 틀어줘서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지만 용돈을 벌 시간은 없었다. 엄마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했다. 사법시험 1차를 합격하고 2차 공부를 하다가 신림동 고시촌에 가게 되었는데, 이때는 엄마로부터 35만 원, 언니로부터 30만 원을 받아 생활했다. 사실 원룸비와 밥값도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남자친구(현재의 남편)가 본인 굶어가며 나를 먹여 살려주었다.

우리 집 형편을 생각하면 고시반에 있어야 했지만 그때 나의 정신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고시반을 나가야 했다. 아빠가 점차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에 구멍이 나면서 일을 그만두실 수밖에 없어, 엄마와 언니가 우리 네 가족의 수입원이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 가족은 내가 공부를 포기하게 하지 않았고 엄마와 언니의 희생과 지원 아래 계속할 수 있었다. 언니는 서른 살까지만 지원해주겠다고 했다. 나는 다행히도 **스물다섯 살에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나는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내가 직접 돈을 벌며 공부를 해야 하는 정도는 아니었고, 정서적으로는 괜찮은 환경이었다. 그러므로 저 바닥의 극한의 환경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도량용은 아니고, 그보다는 조금 큰 물줄기인 '개울'에서 난 용이라고 보면 적절할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왠지 '개울용'은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어려운 환경을 딛고 판사가 되었다는 자부심이 큰 사람이다. 사법 연수원 시절, 변호사 시절, 판사가 된 현재까지 주변 법조인들은 최소한 중산층(내 기준 부자)이거나 진짜 부자집 자식들이다. 나보다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한 사람도 물론 보았다. 하지만 나는 '어렸을 때 집 못살았다 배틀'을 하면 웬만하면 이길 수 있다는 이상한 자부심이 생겼다. 어차피 이 법조계에 나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된 사람은 드물다. 그렇다면 나는 객관적으로는 개울용이 맞지만 '또량용'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또량: 도량의 방언). 개울용보다 또량용이 웃긴 말 같아 마음에 든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또량용'으로 칭하고 싶다.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어렵다 한들 여전히 개천에서도 용은 난다. 원래 개천용 자체가 나기 어려우니 있는 말이다. 그 개천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나도 노력하면 용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가족들의 희생과 학교의 내·외부 장학회, 기업 장학회 등 여러 지원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요즘은 그때보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은 시대이다. 하다못해 본인이 속한 종종의 장학금이라도 찾아보면 있다. 의지를 제대로 갖는다면 여전히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세상인 것이다.

웃긴 것은 이 글의 주제와 내 이름이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내 이름은 '큰 강'이라는 뜻이다. 언니가 '큰 산'이라서 나는 '큰 강'이 된 것이지만, 아빠가 비록 환경은 개천일지라도 강에서 자란 용처럼 되라는 뜻으로 지어주셨다고 지나친 확대 해석을 하기로 한다. 원래 꿈보다 해몽이다. 그리고 사실 이 글은 "너네 가족 대단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쓴 글이 맞다. 없는 형편에 뒷바라지해 준다고 무지 고생했던 우리 친정 가족들과 자신의 젊은 날을 나를 위해 애써준 남편에게 오늘도 고마운 마음을 갖는다.



이달의 법원사

## 2008년 1월 1일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제도,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듯 감동했던 기억

글. 고선미 기록연구관(법원도서관)



빨간 엑스표기가 보이는 호적등본  
(한국학중앙연구원)

“호적에서 파버린다.”  
“호적에 빨간 줄 그어줘?”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누군가는 ‘맞아, 맞아.’ 할 것이고 누군가는 ‘무슨 말이야?’ 할 텐데요. 전자는 부모의 맘과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딸에게 하던 말인데요. 호적에서 결혼한 딸, 분가한 아들, 사망자의 이름에 빨간색으로 엑스 표기를 하여 제적했던 것과 관련됩니다. 후자는 정확한 연원을 찾지 못했는데요. 호적에 형사 처벌 이력을 성명에 빨간 줄을 그어 표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여서 그저 경찰에 신원조회를 하던 절차와 관련하여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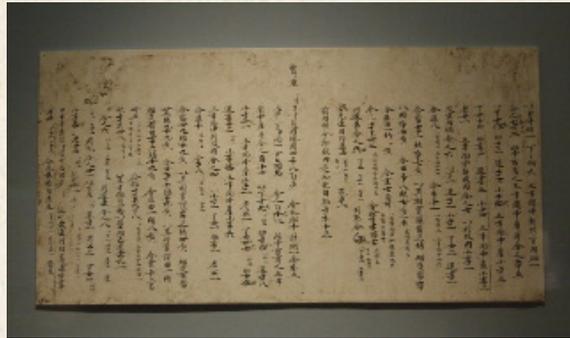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안내 포스터

이렇듯 우리가 누구이고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를 기재하던 장부가 호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누군지도 모를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난감합니다. 본인의 부모 형제와 함께 있던 호적에는 이름에 빨간 엑스 표시를 하여 ‘분명하게’ 제적하고, 새로 편입된 호적에는 누구의 처 아무개로 올라가 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참 많더라는 거지요. 이러한 형식의 호적제도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것으로, 호적을 현실의 세대(戶)가 아닌 가(家)별로 편제하여 호주를 두고 나머지 구성원을 호주의 부수적인 존재로 기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상의 가족관계와 호적제도는 광복 이후 제정된 민법과 호적법에도 그대로 수용되었습니다. 그러다 2005년 헌법불합치결정(2001헌가9, 10 등 결정)에 따라 같은 해

3. 31. 민법이 개정되고 2007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 1. 1.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달의 법원사’로 우리나라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자료를 소개하려 합니다.

고대국가 이래 왕은 토지를 관리하고 민인을 지배하는 정점에 있었습니다. 백성은 왕의 땅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대신 토지에 대해서는 조(租), 사람에게 대해서는 용(庸), 호(戶)에 대해서는 조(調)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이런 체계에서 왕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 그 근거자료를 꾸준히 현행화하며 확보해야 했는데 명칭은 다양할 수 있으나 그것을 호적이라 할 만합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자료는 752년경 작성된 통일신라 북부 서원경(현 청주)과 그 부근 4개 촌에 대한 장적(帳籍)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민정문서, 촌락장적 등으로 불러왔는데 이제 ‘신라촌락문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1933년 일본 나라(奈良)의 사찰 도다이지(東大寺)의 쇼소인(正倉院)에서 화엄경론 책자를 보관하던 덮개를 수리하던 중에 그 내부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때 사진을 촬영한 후 원래 형태로 복원하여 해당 문서는 당시 촬영본을 기초로 연구되고 있을 뿐입니다. 2011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특별전 <한국고대문자전>에 복제본이 전시되었는데요. 가로 58cm, 세로 29.6cm의 닥종이에, 논·밭의 크기와 사람 수 그리고 3년간 사망하거나 이동한 사실을 기록하고 특히 사람은 노비까지 포함하여 성별, 연령별로, 그 외에도 소나 말,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의 수까지 상세히 기재하였다고 합니다. 4개 촌에 43가구 443명이 살았던 것으로 보아 대체로 한 마을에 10가구 남짓, 남자 49명, 여자 61명, 소는 13마리, 말은 15마리, 뽕나무 1,062그루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신라촌락문서(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전시 복제본)

고려시대의 호적은 기재 대상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으나 정작 해당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호적제도는 경국대전에 그 형식과 체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경국대전 호전에 따르면 3년마다 일종의 신고서인 호구단자(戶口單子)를 제출하여 한성부에서 전국의 호적을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시기 가장 오래된 호적문서는 ‘고려말 화령부 호적문서’로 이성계의 관직과 영지(領地), 자식, 형제, 사위, 가문의 노비 등 40호의 호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려말 화령부 호적문서(1390년, 국립중앙박물관)

법원도서관에도 조선시대 호구단자와 호적표, 준호구 몇 건이 있습니다만,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여주 이씨의 19세기 호구단자, 호적표, 민적부를 통해 당시 호적제도를 볼 수 있어서 이를 소개합니다. 1891년 호구단자는 경주부 안경현 옥산리에 거주하는 이병유가 동거가족인 처와 소유노비를 기록하여 경주부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이병유의 사조(四祖)-부(생부 포함), 조부, 증조부, 외조부-와 처의 사조를 기재하고 노(奴) 8명, 비(婢) 4명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구단자(1891년)



호적표(1897년)

6년 후인 1897년에 작성된 호적표는, 1896에 시행된 호구조사규칙(칙령 제61호)과 세칙(내부령 제8호)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직업을 기재하고 이병유의 사조만 밝히고 처와 아들 등 동거 친족의 이름과 인원수, 고용인의 수, 가택의 크기와 구조를 인쇄된 용지에 기입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병유는 62칸 기와집에서 처와 두 아들 그리고 고용인 남녀 각 2명 총 8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가옥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가(家) 단위의 호적에 친족 등을 포함하여 함께 기거하는 사람들을 기재하는 오늘날의 주민등록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1909년 민적법(民籍法, 법률 제8호)과 민적법집행심득(民籍法 執行心得, 내무훈 제39호)이 제정되어 민적부가 호적으로서 기능을 하였습니다. 호주의 사조와 직업을 기재하는 난이 없어지고 호주, 호주의 직계존속, 호주의 배우자, 호주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호주의 방계 및 배우자, 호주의 비친족(非親族) 순으로 서식을 채우고 모든 이의 신위(身位)란에 호주와의 관계를 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사유란에는 변동사항을 적고 모든 가족원의 본관과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병유의 민적부에는, 본적지에서 양반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 본관은 여주, 전 호주인 부친이 사망하고 장남으로 호주를 승계하였다는 것과 어머니 성명이 보입니다. 호주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있고 이어서 처, 장남, 장남의 처, 차남, 장녀, 차녀 순으로 성명과 본관, 부모,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노비나 고용인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기 호적신고는 부윤(府尹) 또는 면장(面長)에게 하고 경찰서에서 호적부를 관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전통 호적제도에서 볼 수 없었던 '호주'라는 용어가 민법상의 법률용어로 고정되었습니다.



민적부(1909년 이후)

1922년 일본 명치가족법을 근간으로 한 조선후적령이 공포되고 1923.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호적사무는 지방법원

장이나 지청의 상석판사가 감독하였습니다. 호적부 정보는 부청(府廳)이나 면사무소에 비치하고, 부분은 호적 기재를 완료한 신고서 등의 서류와 함께 감독법원에서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호적은 관념의 가를 편제 단위로 하고 하나의 가에는 반드시 한 명의 호주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가족과 현실 생활의 가족은 상이한 개념이 되고 더욱이 가족은 호주에게 종속되는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선후적령은 1939년 개정되어 창씨제도를 채택하였고 1940. 2. 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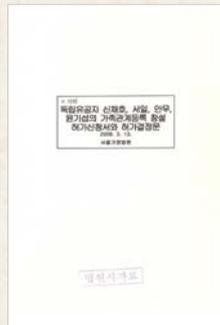


창씨개명을 하려고 줄을 서있는 사람들  
(서울역사편찬원 소장)



씨설정계  
(1940년, 법원도서관 소장)

1946. 10. 23. 조선성명복구령(미군정법령 제122호)을 공포하고 12. 24.부터 시행하여 창씨개명을 환원하였습니다. 1958년 민법을 제정하여 1960년 호적법과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호적법은 조선후적령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호주 중심으로 호적을 편제하고, 호주 승계는 부계남계 원칙이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2005. 3. 31. 민법 제4편(친족) 제2장 호주와 가족, 제8장 호주승계 부분이 삭제되고 2007. 5. 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호주, 남성 중심의 신분편제에서 개인중심, 남녀평등의 신분등록제로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옛 호적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이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허가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신채호 등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청서와 결정문 사본을 법원사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창씨개명을 환원한 흔적(1943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소장)

2008년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에 앞서 전산정보시스템에 호적부를 옮기고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해주었습니다. 평일 점심을 마치고 산책을 하다가 그저 단순한 호기심에 근처 동사무소에서 기본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증명서는 본인의 이름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식 그리고 배우자가 기재되어 모든 내용이 '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증명서를 보는 순간, 마치 세상의 중심에 있는 듯 당당해지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의도하고 행동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세상이 인정해주는 느낌이 들었다면 과장된 감정일까요?

# 법원의 하루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오염정 행정관의 하루

사진. 홍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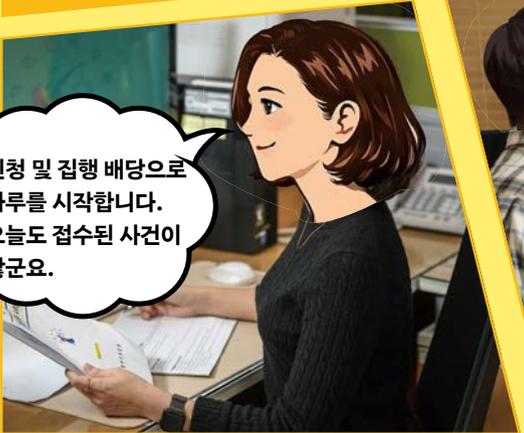
## 모두를 웃게 만드는 민사신청과의 햇살!

업무로 분주한 순간에도  
창구 앞에서는 민원인의  
마음부터 차분히 살피는  
오염정 행정관의 햇살 같은  
하루를 함께 살펴보자.

오늘도  
힘차게 출근합니다. 아자아자!



신청 및 집행 배당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접수된 사건이  
많군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충을 상담하고 싶어 하는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건은  
제가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직원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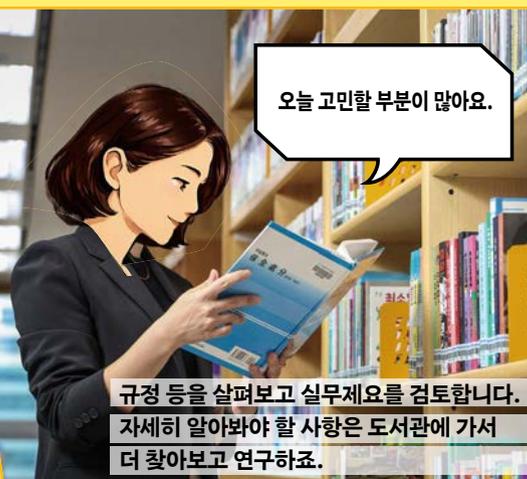
자, 이번에 진 사람이  
커피 쓰는 겁니다!



귀중한 점심시간이지만 체력 단련을 게을리할 수는 없죠!  
동료 직원들과 친분도 쌓고, 체력도 키우고!



증거보전사건 기일로 참여관 업무를 수행합니다.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과 재판 관련 핵심 사항을  
조서로 정리합니다.



오늘 고민할 부분이 많아요.

규정 등을 살펴보고 실무제요를 검토합니다.  
자세히 알아봐야 할 사항은 도서관에 가서  
더 찾아보고 연구하죠.



혹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접수대 쪽에서 조금 큰 소리가 들리네요.  
어려움을 토로하는 민원인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진심이 느껴진 걸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좀 놓이네요.  
감사합니다.

**봄날의 햇살 같은  
오염정 행정관님을 칭찬합니다.**

**내면과 외면 모두  
우리 법원 최고의 미인(美人)**

- 오염정 행정관님은 모두에게 상냥하고 넓은 마음씨를 가진 세련되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한번은 처리하기 까다로운 민원이 있었는데, 늘 미소를 잃지 않고 진심으로 응대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  
- 최우성 주무관-

**미소가 너무 아름다운 그녀**

- 사무실에서는 항상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는, 미소가 예쁜 오염정 행정관입니다. 접수 담당 행정관에게 힘든 일이 생긴다면 어디선가 나타나 해결해 주곤 해서 늘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해결사이기도 하죠. 아마 천사도 오염정 행정관님 같은 미소를 지을 것 같아요. ●●  
- 양선영 행정관-

**봄과 가을처럼 멋진 존재**

- 모든 직원과 잘 어울리고 민원인들에게도 친절하신 오염정 행정관님. 소란스러운 일도 잘 처리해 주셔서 믿음직스럽기도 합니다. 민사신청과 특성상 쉽게 처리하기가 어려운 민원도 많은데, 늘 먼저 민원인의 마음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 박수정 행정관-

일상의 여운

# 법원사람들의 하루가 남긴 울림

하루의 작은 떨림이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남긴다.  
법원사람들이 걸어온 길과 따뜻한 일상의 순간들,  
그 속에서 어떤 울림이 피어났는지  
함께 따라가 보자



## 우리집 진짜 주인

#쿠니와감자

#반전매력

#무해한행복

굴러들어온 솜뭉치에서 내 마음을 점령한 '맹수' 고양이 쿠니, 번식장의 아픔을 딛고 금메달리스트로 견생역전한 강아지 감자. 작고 소중한 '진짜 주인'들이 전하는 위로와 사랑을 만난다.

- 법원행정처 강선미 주무관
-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은진 주무관

## 법원 스토리

#제24회문예상

#평범한일상의기록

#따뜻한울림

위기 청소년을 향한 진심부터 시각장애인과 함께 달린 마라톤까지. 제24회 '법원사람들 문예상'을 통해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감동으로 빛어낸 법원 가족들의 이야기를 만난다.

제24회 '법원사람들 문예상' 시상식

## 근처 한 바퀴

#동부지법관할

#성수동햇플

#겨울한강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의 동쪽. 붉은 벽돌의 감성이 흐르는 성수동부터 역사가 숨 쉬는 송파까지. 차가운 겨울바람도 잊게 만드는 우리 법원 근처 햇플 레이스와 한강 힐링 루트를 만나본다.

붉은 벽돌의 낭만부터 한강의 겨울 윤슬까지

## 글러들어온 솜뭉치, 맹수가 되어 내 마음을 점령하다

글. 법원행정처 강선미 주무관

### 첫눈처럼 다가온 솜뭉치, 그리고 집사 생활의 서막

2017년 12월, 유난히 포근했던 어느 겨울날. 첫눈처럼 그가 나에게 왔다. 임시보호 이모의 담요에 폭 싸여 우리 집 거실 한가운데 살포시 놓인 하얗고 보드라운 솜뭉치. 차마 어찌하지 못해 안절부절못하며 발만 동동 구르는 나와는 다르게, 손바닥만 한 그 솜뭉치는 이내 담요 밖으로 나와 거실을 스윽 둘러보더니 태연하게 일어났다. 그리고는 그 조그마한 네 발로 아장아장 여기저기 탐색을 하기 시작했다.

‘헉... 고양이는 낯선 환경에 마주하면 숨을 곤췌고 찡눈이 뜨는 거인데?’

고양이를 7마리나 키우고 있는 전문가 이모님과 임보 전 단기 속성으로 열심히 고양이의 특성에 대해 공부한 나, 두 사람 모두 놀란 순간이었다. 그 순간, 이 녀석이 범상치 않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처음 보는 나와 가족들에게도 전혀 낮가림 없이 다가와 보드라운 털을 비비며 인사를 나누고, 4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을 샅 샅이 살펴보는 당당하게 온 집안을 활보했다.

‘내가 살게 될 곳이 여기인가... 흠...’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다. 나는 평생 ‘그분’을 모시게 되는 집사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리라는 것을...

### 길고양이 계의 숨은 맹수?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유기된 4개월령의 아기 고양이는 그렇게 나에게 왔다. 거리에서 며칠을 떠돌았을 지 모르기에 동물병원에 가서 검진부터 했는데 수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다.

“품종묘들은 유기되면 더 고생해요. 길고양이 무리에서 배척당하기 쉽거든요. 하얗고 긴 털, 본인들과 다른 외형을 가졌잖아요. 보통 영역 다툼에서 공격을 받아 상처가 많이 나서 오는데... 그런데 애는 때리고 다녔나 봐요.(웃음) 상처 하나 없이 털도 너무 깨끗하고 그 흔한 진드기도 없어요.”

그렇다. 길고양이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한 맹수 한 마리가 우리 집에 온 것이었다. 맹수답게 사냥 놀이를 해도 지칠 줄 모르는 체력, 순식간에 냉장고 꼭대기를 점령하는 점프력, 언니의 팔을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근력, 공놀이를 하면 공을 앞서나가는 순발력까지 갖춘...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아이였다.

☆ 언니에게 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

그가 우리 가족이 된 지 벌써 8년이다. 초보 집사로 지난 몇 년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쿠니는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  
 언니가 퇴근하면 제일 먼저 현관문으로 '우다다' 달려 나오는 사랑둥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 낱상편지를 내밀며 놀아달라고 보채는  
 재롱둥이, "기다려-앉아-손-뽀뽀-까까" 정도는  
 알아듣고 훈련이 가능한 똑쟁이, 막 일을 마친 열기 가득한 건조기  
 안에서 유유자적 뜨거운 찜질을 즐기고 나오는 능청꾸러기.  
 삼자와 바구니, 끈만 보면 무아지경에 빠지는 천생 고양이,  
 리고 언니가 올면 제일 먼저 달려와 안기는 위로쟁이. 쿠니야, 앞으로  
 도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나와 함께 하자.  
 언니에게 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쿠니(Kooni) ♡

- 이름: 쿠니(Kooni) • 나이: 8세
- 견종(묘종): 터키샹고라 또는 페르시안 추정  
(화랑고 보드랍고 풍성한 장모가 매력적인 미묘)
- 특징: 도도하고 시크래 보이지만,  
 낯선 사람에게도 먼저 다가가는 파워 '마중냥이'



쿠니



## 번식장의 ‘럭키’에서 금메달리스트 ‘감자’가 되기까지

글.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은진 주무관

### 운명처럼 다가온 너, ‘럭키’에서 ‘감자’로

제가 감자를 만나게 된 건 ‘도로시지켜줄게’라는 보호소를 통해서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강아지를 입양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에서 견사 청소와 산책 봉사도 해보고, 여러 입양제도 다녀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보호소에서 ‘럭키’라고 불리던 아이를 처음 만나 1차 입양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럭키는 부산의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된 아이였습니다. 번식장에서 4년간량 지내다 보니 치주염과 슬개골 탈구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번식장에서의 트라우마 때문에 남자 보호자를 무서워할 수 있고, 이것이 파양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입양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임보자(임시보호자) 가족과 럭키를 직접 만난 그날, 럭키는 제 마음속으로 쏙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후 2차, 3차 상담을 거쳐 드디어 럭키를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은 제 성씨 ‘신’과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인 ‘감자’를 합쳐 ‘신감자’로 지어주었고, 정확한 생일을 알 수 없어 추정 나이(5살)와 우리 집에 온 날짜를 기준으로 2020년 5월 25일을 감자의 생일로 정했습니다.

### 건조대 사건과 고구마, 그리고 열린 마음의 문

처음 감자가 집에 왔을 때는 켈넬 밖으로 통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밥이랑 물도 켈넬 앞에 두고 방에 조용히 들어가 있거나, 최대한 관심을 주지 않으며 감자가 스스로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 후 홈캠을 보는데 감자가 베란다의 빨래 건조대를 보며 막 짓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란 저는 집으로 달려가 건조대를 치우고, 놀란 감자를 달래주려 고구마를 구워줬습니다. 다시 회사로 복귀했다가 퇴근해 집에 왔을 때, 감자는 켈넬 밖으로 나와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감자의 용기가 감동으로 다가오는 잊지 못할 날이었습니다.

### 귀마개 소동 끝에 찾아온 ‘한 침대’ 사이

감자가 우리를 더 편하게 느끼도록, 남편과 저는 거실에 토퍼를 깔고 켈넬 근처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감자가 토퍼에서 제 귀마개를 씹고 있기에 “안 돼!”라고 소리쳤더니, 삐걱까 봐 놀란 감자가 귀마개를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귀마개를 토하게 하고 돌아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감자는 처음으로 켈넬이 아닌 토퍼 위에서 저희와 같이 잠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늘 우리 옆에서 자기 시작했고, 이제는 당당하게 침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잠을 잡니다.

### 세상 밖으로 나온지 1년, 금메달리스트가 되다

감자는 2024년 10월 17일에 번식장에서 구조되었기에, 세상에 나온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입니다. 감자는 궁금한 것도 많지만 무서운 것도 많고, 먹을 거 말고는 세상에 즐거운 게 뭔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감자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친구들과 노는 법을 배우면 좋겠다 싶어 강아지 유치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감자에게 먼저 다가오는 친구들도 생기고, 함께 산책도 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걸어가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유치원 '기다려 대회'에서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하원할 때 목에 메달을 달고 '우다다' 달려 오는 감자가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감자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행복한 만큼, 감자도 언제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자야, 사랑해! 오래오래 우리랑 행복하게 살자!



신감자

- 이름: 신감자 (개명 전: 격기)
- 생년월일: 2020년 5월 25일(취원번호: 개로정착형생)
- 특징: 부산의 불법 번식장 구조견 출신. 겁은 많지만 용기 내어 세상과 친해지는 중인 노력파이자 유치원 '기다려 대회' 1등에 빛나는 금메달 건공.



감자



〈법원사람들〉에 독자 여러분의 반려동·식물을 소개해 주세요.

일상 속에서 함께 웃고, 위로 받고, 추억을 쌓아온 반려동물·식물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사연은 다음호 〈법원사람들〉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문의: courtpeople@scourt.go.kr

보내주신 사진은 인화해 예쁜 액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선물처럼 다가온 감동과 웃음, 행복 가득한 이야기 제24회 '법원사람들 문예상' 시상식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보며 마음속에 오래 남은 순간들을 조심스레 꺼내 놓는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상이었을까라도, 글로 기록된 경험은 공감과 울림이 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는다. 제24회 '법원사람들 문예상' 시상식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한자리에 모인 시간이었다.

글. 김민진 사진. 전경민



###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10개의 수상작

‘법원사람들 문예상’은 2000년부터 시작된 유구한 행사로 한 해 동안 <법원사람들>에 수록된 글 중 우수한 10개 작품을 선정하는 상이다. 법원 가족들의 아름답고 특별한 이야기들을 보다 많은 사람과 나누고 소중한 이야기를 기고해 준 참가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총 5명의 심사위원이 지정되어 수상작을 결정한다.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7명을 선정했다.

### 감동적인 수상작으로 가득 채워진 <법원사람들>

대법원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대상을 받은 대전지방법원의 조은희 조사관을 비롯한 6명의 수상자가 참석했다.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된 시상식이었지만, 상패를 받을 때마다 환한 미소와 박수로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시상식이 끝나고 접객실에서 환담회를 통해 수상작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상을 도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바쁜 와중에도 <법원사람들>이 발행되면 제목이라도 읽어보려 노력하는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고맙고 뿌듯한 시간이었다. 뛰어난 글재주에 한 번 놀랐고 굉장히 감동적인 주제에 다시 한 번 놀랐다”고 말하며 의미 있는 시상식을 축하해 주었다. 아쉽게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수상자들에게는 별도로 상패가 전달됐다.

###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은 뛰어난 작품들

‘법원사람들 문예상’ 수상작들은 매년 뛰어난 작품성과 특별한 이야기로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대상 수상작인 조은희 대전지방법원 조사관의 <그렇게 ‘삼촌’



이 되다>는 그녀가 남편과 함께 설립한 사단법인 희망커넥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희망커넥트는 올해 설립 3년째를 맞이했다. 배형원 차장은 “그렇게 훌륭하신 일을 하면 보람이 굉장히 클 것 같다”고 말하며 특히 제목이 인상적이었다는 감상평을 들려주었다.

우수상을 받은 채수홍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무관의 <나의 달리기가 누군가의 꿈을 도울 수 있다면>은 마라토너인 채수홍 주무관이 시각장애인 가이드러너로서 시각장애인 배선에님과 함께 마라톤을 완주한 이야기다. 배형원 차장은 “요즘 러닝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렇게 뜻깊고 감동적인 달리를 하는 분은 흔치 않다”며 채수홍 주무관의 열정에 엄지를 치켜세웠다.

장려상을 받은 유미정 광주지방법원 행정관의 <수어를 배우며>는 그녀가 ‘보는 언어’인 수어를 접하며 겪은 다양한 감정들을 담담하게 풀어낸 이야기였다. 농인인 사촌 형제들을 떠올리며 호기심에 시작한 수어 배움은 유미정 행정관에게 또 다른 삶의 목표를 제시해 주는 취미가 되었다. 단순한 배움을 넘어 수어를 통해 농인들의 문화와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는 유미정 행정관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잠깐 멈췄던 수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민식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펠릴리우의 거대한 대자연과 하나 되는 진귀한 경험을 기고해 장려상을 받았다. 시보 시절부터 시작한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아내를 만났고, 세계적인 수중사진 대회에서 수상하기까지 한 노민식





판사는 지금도 친구들과 휴가를 맞춰 다이빙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배 법원행정처 차장은 “배우자와 같은 취미를 즐긴다는 게 무척 행복한 일”이라며 부러운 기색을 내비쳤다.

해외중기연수자와 육아휴직을 합쳐 1년 동안 캐나다에서 살다 온 심미영 수원지방법원 행정관은 당시 경험을 작품으로 풀어냈다. 여유롭고 배려 넘치는 캐나다 사람들, 환상적인 자연풍경, 자유로운 면학 분위기까지. 캐나다에 다녀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심미영 행정관은 아직도 캐나다가 생각난다며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1년이었다고 그 시절을 회상했다.

배주혜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무관은 찾아가는 설명회에 참석해 학생들에게 법원공무원의 일을 설명했던 기억을 기고했다. 배형원 차장은 “낮익은 분이라 생각했는데 유튜브 설명회 영상에 나온 분이였다”고 말하며 법원공무원의 입사 과정과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준 배주혜 주무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배주혜 주무관 역시 “이제 얼굴이 다 알려져서 꿈쩍없이 정년까지 일해야겠다”는 농담을 건네며 유쾌한 분위기로 환담이 마무리됐다.

제24회 ‘법원사람들 문예상’ 시상식은 사소한 일상을 기록하는 일이 결코 사소하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이런 기록이 쌓여 <법원사람들>의 지면을 채워 가듯, 앞으로도 진솔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며 또 다른 감동이 전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제24회 법원사람들 문예상 수상결과

대상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조사관 조은희
우수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정운택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무관 채수홍
장려상	광주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황진희
	서울가정법원 판사 노민식
	광주지방법원 서기관 김강곤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서기관 김상연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행정관 유미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행정관 심미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무관 배주혜	

## 법원사람들 문예상 수상자를 만나다

### 그렇게 '삼촌'이 되다

조은희 대전지방법원 조사관



대상의 영예를 안아 영광스럽습니다. 솔직하고 담백한 글을 쓰고 싶어요. 더불어 남편이 자신의 가치관을 관철하며 만들어 낸 청소년 자립지원 공익단체도 소개하고 싶었죠. 조사관으로 일하면서 우리가 겪는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닌, 오랜 시간 누적된 문제라는 걸 절감했습니다. 이 경험이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등불 같은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 누군가의 꿈을 도울 수 있다면

채수홍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무관



시각장애인 가이드러너로서 함께 달렸던 시각장애인 선생님의 도전 의식과 정신력, 집념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이 오히려 저희 성장의 기회와 감동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미지의 세계 끝단으로, 펠릴리우 다이빙 여행기

노민식 서울가정법원 판사



팔라우에서 배를 타고 더 들어가야 하는 섬인 펠릴리우라는 오지 탐험 경험을 글로 썼어요. 환상적인 수중 환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지만, 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로 슬픈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인간은 자연 안에서 살 수밖에 없고, 자연 안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 글이 여러분의 일상에 가벼운 기분 전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어를 배우며

유미정 광주지방법원 행정관



수어를 배우는 게 생각보다 더더 가끔은 답답하기도 했는데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삶의 활력이 된다는 점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글에는 제가 수어를 접하면서 알게 된 농인 문화의 특징과 수어만의 특별한 점을 함께 담았습니다. 단조롭고 무기력해진 연말에 활력소가 된 것 같습니다. 멋진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꿈만 같았던 일 년, 캐나다

심미영 수원지방법원 행정관



캐나다로 1년 연수를 다녀온 경험을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느낀 여러 심경과 꿈만 같았던 현지 생활, 캐나다만의 문화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제 글을 읽고 도움을 받았다는 분도 있었고, 캐나다에 연수를 가고 싶다는 분도 있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뜻깊은 상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우리는 모두 사법부에서 일합니다

- 찾아가는 설명회를 다녀와서

배주혜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무관



시험제도 개편을 계기로 대학 설명회 발표자로 나섰던 순간에 느낀 솔직한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미래의 후배들에게 저의 자랑스러운 일터를 소개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어요. 부족한 글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응원해 준 동료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법원사람들〉에서 특별한 노하우를 알려주실 분을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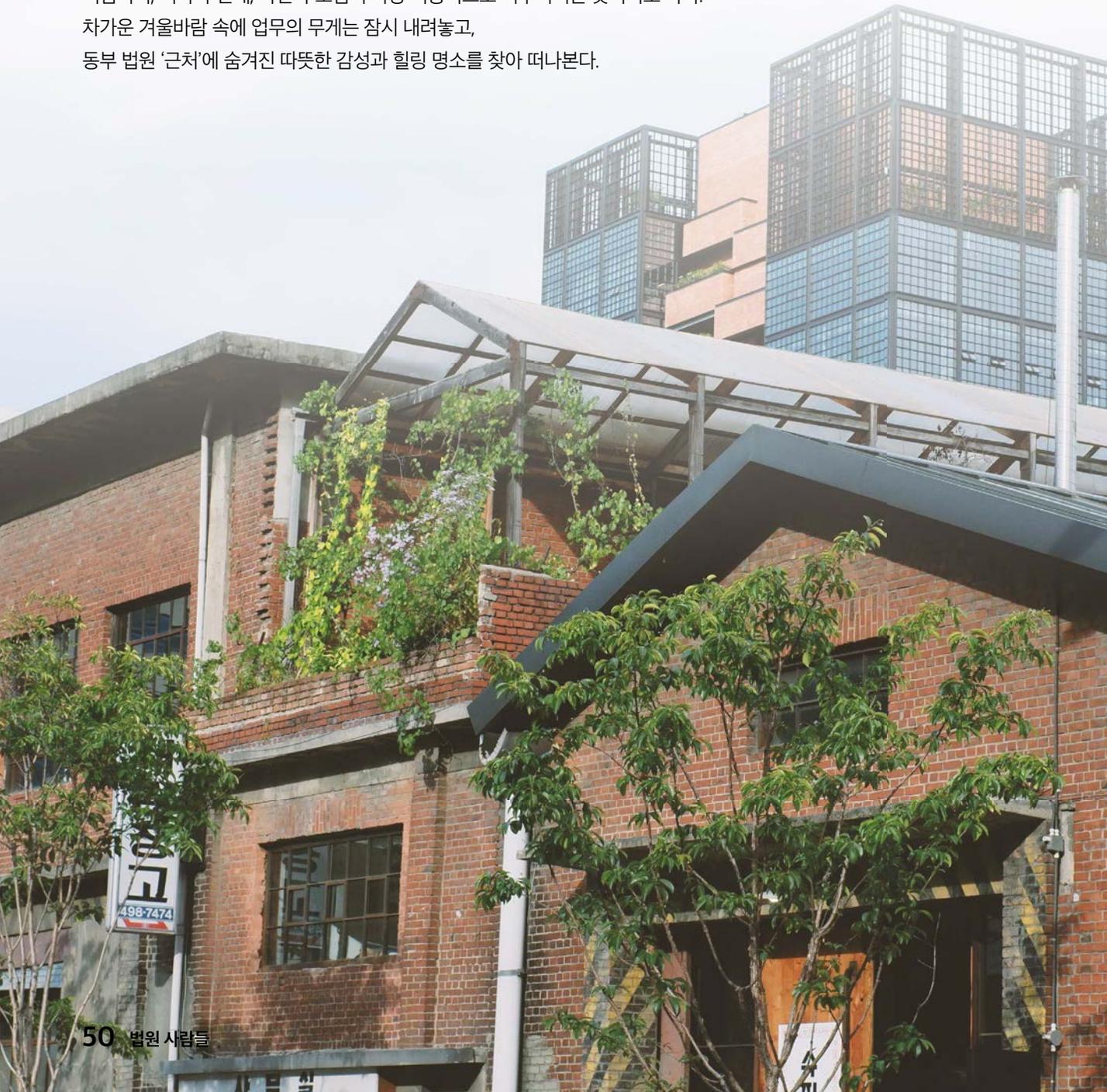
니만 알고 있거 아까운 특별한 노하우를 소개해 주세요. 업무, 일상, 취미, 청소년 등 어떤 분야서든 좋습니다. 보내주시는 사연은 다음호 〈법원사람들〉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문의: courtpeople@scourt.go.kr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상의 여운

# 붉은 벽돌이 낭만부러 한강의 겨울 윤슬까지

글. 편집실

법원 청사가 문정동으로 이전하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는 서울의 동쪽을 책임지며, 역사와 현재, 자연과 도심이 가장 역동적으로 어우러지는 곳이기도 하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업무의 무게는 잠시 내려놓고, 동부 법원 '근처'에 숨겨진 따뜻한 감성과 힐링 명소를 찾아 떠나본다.



**성동구: 붉은 벽돌 사이 피어나는 힙(Hip)한 감성, 성수동**

가장 먼저 발길이 닿은 곳은 ‘한국의 브루클린’이라 불리는 성동구 성수동. 과거 구두 공장과 인쇄소가 즐비했던 이곳은 이제 MZ세대가 가장 사랑하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성수동의 매력은 ‘조화’에 있다. 골목 사이사이 투박한 붉은 벽돌 공장 건물들은 허물어지는 대신, 감각적인 카페와 갤러리, 팝업 스토어로 다시 태어났다. 점심시간이나 주말, 연무장길을 걷다 보면 갓 볶아낸 원두의 향기와 예술적인 영감이 가득함을 느낄 수 있다.

겨울의 성동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은 단연 ‘서울숲’이다. 잎은 이미 떨어졌지만 겨울 하늘과, 메타세쿼이아 길의 고요함은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기에 제격이다.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성동구가 가진 특유의 활기와 심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다.

- 추천 스팟: 성수동 연무장길, 서울숲 가족마당, 성수동 구두테마공원



서울숲  
아차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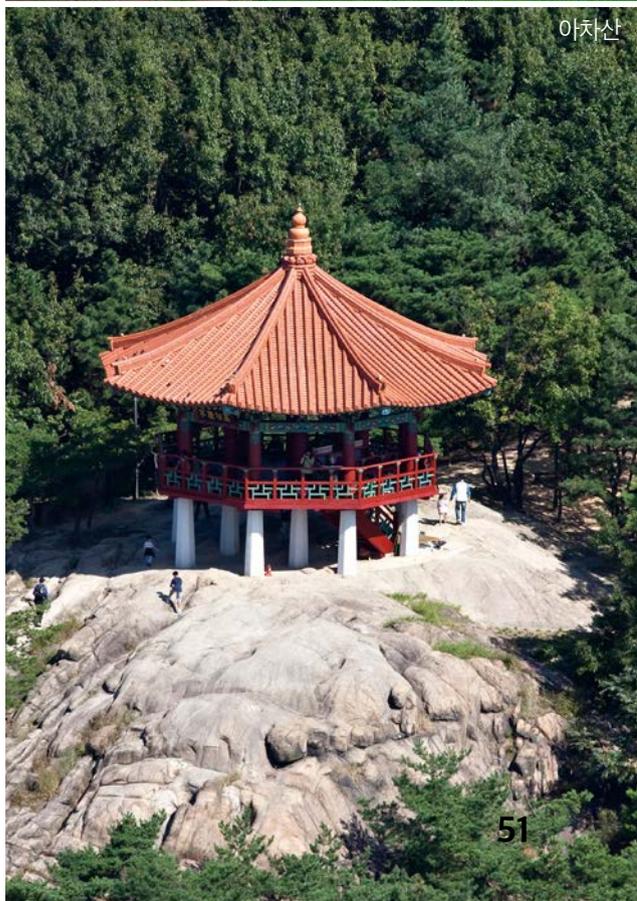
**광진구: 젊음의 에너지와 아차산의 탁 트인 파노라마**

성동구를 지나 동쪽으로 향하면, 대학가의 활기찬 에너지와 한강의 아름다움을 품은 광진구가 나타난다. 건국대와 세종대가 위치한 이곳은 그 탓에 언제나 젊음으로 북적인다.

광진구의 겨울은 뚝섬한강공원에서 빛을 발한다. 여름엔 수영장이었던 공간이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변신해 동심을 자극하고, 독특한 외관의 ‘자벌레(서울생각마루)’ 안에서는 따뜻하게 한강을 조망하며 책을 읽거나 사색에 잠길 수 있다. 업무에 지친 날, 탁 트인 강물을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은 그 어떤 위로보다 크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서울을 내려다보고 싶다면 ‘아차산’을 추천한다. 해발 295.7m로 높지 않아 가벼운 차림으로도 오를 수 있으며, 정상에서 바라보는 겨울 한강과 서울 도심의 파노라마는 가슴을 뻥 뚫리게 한다.

- 추천 스팟: 뚝섬한강공원, 아차산





독섬한강공원



암사동 선사유적지



석촌호수

### **강동구: 선사시대의 숨결과 생태 공원의 고요함**

광진교를 건너면 만날 수 있는 강동구는 서울의 동쪽 끝이자,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사색이 필요하다면 강동구가 정답이 될 것이다.

‘암사동 선사유적지’는 강동구의 상징과도 같다. 6,000년 전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흔적을 따라 걷다 보면, 지금 우리의 고민이 거대한 시간 속에서 잠시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넓게 펼쳐진 유적지의 산책로는 겨울의 정취를 느끼기에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다.

강동구의 또 다른 매력은 풍부한 생태 환경이다. ‘길동생태공원’이나 ‘고덕수변생태공원’은 인공적인 손길을 최소화하여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갈대숲 사이로 불어오는 강바람 소리를 들으며 걷는 길은 법원 가족들에게 진정한 겨울 속 힐링의 시간을 선사해 줄 것이다.

- 추천 스팟: 서울 암사동 유적, 강동아트센터, 광나루한강공원(드론공원)

### **송파구: 법원이 깃든 곳, 호수와 역사가 공존하는 일상**

마지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위치한 송파는 법조단지의 분주함과 거주지의 안락함, 그리고 거대한 랜드마크의 화려함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매력을 지닌 곳이다.

법원에서 차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석촌호수’는 송파구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 모두의 휴식처이다. 호수 뒤편으로 이어진 ‘송리단길’은 트렌디한 맛집과 카페가 즐비해, 퇴근 후 동료들과 소소한 회식을 즐기거나 주말 데이트를 즐기기에 완벽하다.

조금 더 걷고 싶다면 ‘올림픽공원’으로 향해도 좋다. 백제시대의 토성인 몽촌토성을 품은 이 거대한 공원은 사시사철 특히, 겨울이면 ‘나홀로나무’가 서 있는 들판이 이국적인 설경을 만들어 낸다. 법원 청사를 벗어나 잠시 점심시간에 문정동 법조단지 내의 ‘문정근린공원’을 걷는 것만으로도 송파만의 잘 정돈된 미학을 느낄 수 있다.

- 추천 스팟: 석촌호수 & 송리단길, 올림픽공원 몽촌토성, 문정동 법조타운 근린공원

# 겨울 한강 따라 걷는 도심 힐링 루트

성동 > 광진 > 강동 > 송파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지는 겨울, 4개 구를 관통하는 한강 물길을 따라 드라이브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구역을 하나로 잇는 특별한 힐링 루트를 제안한다.

### 성동구: 성수 구름다리 & 서울숲

**1** 서울숲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보행 가교 '바람의 언덕'에서 시작한다. 강변북로 위를 가로지르며 마주하는 탁 트인 한강 뷰가 압권.

START

### 광진구: 자벌레

**2** 강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면 독섬한강공원이 나온다. 윈드서핑장을 지나 독특한 원통형 구조물인 '자벌레' 통로를 걸으며 독섬 유원지의 겨울 풍경을 감상해 보자.

MOVE

### 강동구: 광진교 8번가

**3** 광진구와 강동구를 잇는 광진교는 걷기 좋은 다리다. 다리 하부에 위치한 전망대 '리버뷰 8번가'는 발아래로 강물이 흐르는 스릴과 함께 최고의 일몰을 선사한다.

VIEW

### 송파구: 잠실철교 & 올림픽대교 야경

**4** 강동에서 송파로 넘어와 잠실한강공원 길을 걷는다. 지하철이 지나가는 잠실철교의 레트로한 소리와 올림픽대교의 화려한 조명을 배경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자.

FINISH

센스 만점! 법원



짧고 강렬한 한 문장으로 당신의 재치를 뽐내주세요. 업무 스트레스를 날릴 유쾌한 유머부터, 동료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문구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법원 가족 여러분의 숨겨진 문학적 감수성을 깨워드립니다."**

매일 마주하는 단어들이지만, 여러분의 상상력이 더해지면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시 태어납니다. 평소 하고 싶었던 말, 혹은 나만의 개그 코드를 담아 N행시를 지어주세요. 선정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제시어(미션 단어)

아래 제시어 중 하나를 골라 도전하세요!  
(중복 참여 가능)

[ 법원 ]

[ 판결 ]

[ 정의 ]

작성 예시(Box 처리)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시어: [ 법원 ]

(법) 법 없이도 살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원) 원 없이 사랑하며 행복하게 삽시다!

제시어: [ 판결 ]

(판) 판사님, 부장님, 과장님! 오늘 점심은  
(결) 결단코 맛있는 걸로 사주세요!

참여 기간 2025년 1월 7일(수) ~ 1월 30일(금)까지

참여 방법 QR코드 스캔하고 참여하기



당첨자 선물 1. 커피 기프트콘  
2. 선정된 N행시는 다음 호 <법원사람들>에 게재됩니다.



5인  
증정



